

㉟ 飛天—全高四·五cm 胸幅二·一cm

㊱ 銅筭

(1) 長 一一·六cm, 頭幅二·八cm

(2) 長 九·五cm, 頭幅一·三五cm

(3) 長四·一五cm 頭幅〇·九cm

㊲ 木塔—兩外·十三基分、兩內一基腐蝕이甚하나 그中 中形完品은

(1) 高五·八五cm 基壇幅一·五五cm

(2) 高六·七cm 基壇幅一·九五cm

其他 陀羅尼經은 外部에서 虫蝕이 있어 三十三張이 分離됨으로 正確한 全長을 알 수 없으나 紙幅六·二cm의 卷軸으로 全長은 五m以上으로 推定되었으며 主舍利函外底에 있던 墨書를 비롯하여 紙片, 絹布等은 未調査로 남아 있다.

一、十月十九日 文化財委員會를 開催하고 釋迦塔 破損經緯를 聽取한 다음 對策을 論議한바 破損部分은 收拾된 破片을 接着劑로 復原하고 原來의 方針대로 一層塔身以下는 解體하지 않고 復原하기로 方針을 決定하였으며 以後의 工事指導에는 李弘植 第一分委員長이 擔當하기로 하였다.

歐州通信(第二信)

申 榮 勳

八月五日 코펜하겐 到着하자 이튿날부터 人夫를 動員하여 韓國室書齋設置用資材의 運搬包裝을 끄르기 시작하였다. 蓋瓦, 花崗石礎石과 歩石에 이르기까지 갖고 온 荷物の 총무게는 約五〇톤으로 (包裝重量包含) 상당한 무게이고 부피도 만만치 않다. 一〇톤限度の 승강기를 利用하여 三層韓國室로 옮기는데 四日이 걸렸고 포장을 푸는 한편으로는 礎石을 놓고 基礎工事 등의 作業을 進行하기로 하였다. 이 나라 建築管理局 建築技士 한 사람의 比圖面과 到着한 荷物の 重量과를 計算하여 鎚의 무게를 算出하였는데 지나치게 무거워 既存바닥이 무너질 위험성이 多分하므로 別途方案을 檢討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도착하자 마자의 첫 課題였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重要な 일로 二層으로부터의 補強施設을 完了한 후 工程에 들어가야 한다면 時日이 問題이고 아래층 眞實실(이방은 태국의 宮廷樂器를 眞實하여 놓았는데 방한칸 전체를 유리로 막고 演奏하는 狀態대로樂器를

配列하여 놓았음)의 형편 때문에 눈에 보이게 補強施設을 할 수 없노라며 房을別塗로 구하지 않는 한 施工이 不可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寸구와 마주 앉아 계산을 놓고 다시 檢算하기 시작하였읍니다. 물론 韓國建築의 양식과 力學計算法 등을 강의한 후에 저쪽이 남쪽하도록 하고 계산을 시작한 일이어서 조진은 자기 혼자서 不可能하다는 前提下에 계산하였던 것과는 다른 상태입니다. 네 시간 반만에 계산하면 결과는 建物의 기초가 連立基礎일 경우는 設置하여도 無妨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백이 으레 쌍을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라 점사 겸사 잘되어서 오히려 쉽게 基礎作業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泥匠工二人(後에 一人追加)木工二人, 電氣工二人, 塗裝工 一人의 助力을 받으며 組立에着手한바 八月二日까지에 기동과 대들보 도리거는 것을 끝내고 一三日부터는 서까래 결기와 九月一日부터는 지붕구조를 시작하였는바 既存 天井과의 공간이 좁아 의외로 상당한 시일이 걸려 九月一日에야 개와를 완전히 덮을 수 있었다. 其間 한편으로는 수장드리고 알뜰하고 반자를 만들어 개와 끝나자 벽에 회벽치는 미장과 천정부터 시작하는 도배가 동시에 시작되었고 二六日 도배와 미장이 끝나게 됨에 따라 목재에 기름버리는 일과 照明施設의 再調節 陳列 등의 公正만이 남게 되었고 韓國室 既存窓門에 韓式窓戶를 設置한 圖面과 陳列樣式圖面 宣傳用 포스터의 圖案, 寫眞資料의 擴大(陳列, 宣傳) 등 傍系의 일이 別道 進行되어지고 있다. 지금 예정으로는 十月一三日 開室할 듯한데 이 진열은 永久的인 것으로 지금까지의 없어서 좋을 초라한 진열품들 대신에 韓國文化의 一部를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관계 자료로서는 日本室 한 구룡이에 진열장 두개를 차지하고 불이 죽어 후출근해진 배두루마기와 여자들의 의복(면)과 무당이 쓰는 칼과 창 그리고 의복과는 당치도 않은 활과 箭筒, 그 위에 지게와 대소쿠리가 놓였고 만 진열장에는 山水畫屏風과 新羅, 高麗의 佛像이라고 설명서가 붙은 銅製立佛 銅器 白磁器(祭器) 자물쇠 등이 있고 따로 木佛(한국인 기증)의 一軀 진열되어 있다. 이 박물관(NATIONAL MUSEUM, SEET, KOBE NHAVN DANMARK). Frederik 三世의 “Cabinet of Curiosities”로 發足하여 一八〇七年에 Frederik Múnter 王의 하위 補充되고 一八六五年에 現代規模를 갖추게 되었는데 一八一八—二〇年까지의 石器時代, 靑銅器時代의 陳列品을 蒐集整理하기 시작하면서 규모가 커졌고 一八四一年에 開館하여 공개하고부터는 各國民俗資料에 관심을 보여 一八五一年부터는 民俗資料를 대내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一八八一年에는 丁抹民俗博物館을 一

九〇一年에 古代住宅 內 Open Air Museum에 開設하였다.

박물관은 대체로 七個部分으로 大別되는데 앞에 말한 丁抹民俗, 古代住宅 등의 두개의 커다란 코렉온과 丁抹과 全世界의 銅錢과 勳章을 모은 부분과 石器 青銅器時代資料 인디언들 등 原始部族의 資料, 全世界의 民俗資料와 中近東, 東南亞 極東의 民俗資料 등이 있고 그 중 東洋關係資料(특히 民俗資料)는 歐州에서도 有數한 코렉온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한국실 설치도 이 파트에 속하는 것이다. 東洋關係資料는 博物館 西館(東側)은 丁抹民俗, 石器 中世의 繪畫(等陳列) 二, 三層에 進열하여 놓았는데 그 중 三層은 入口로부터 아라비아, 이라크, 몽고 중국(KINA)라고 부름) 日本, 韓國, 印度, 印度支那, 泰國, 버마, 캄보디아 등 거의 빠진 나라가 없을만치 차례로 말라되어 있는데 中國과 우리 것의 경우는 간혹 석인 물건도 있어 중국진열장 속에 高麗銅鏡이 있기도 하는 珍景이 있는데서 로 몰라 그렇지 다른 나라 진열장 속에 엉뚱한 나라의 것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그만큼 關係資料를 隨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슬며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韓國關係資料中 一九四一年에 購入하였다고 하는 「箕山」落款 國俗畫 八〇餘幅은 注目된다. 一〇〇餘年前의 生活狀態를 묘사한 것이라는 설명문이 있는 외에 箕山이 何處何時人인지 尙장 모르겠어서 구체적인 紹介는 할 수 없으나 그림마다(없는 것도 있지만) 무슨 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諺文(?)으로 설명을 써놓아서 대단히 흥미 있는데 그림 자체는 그리 秀筆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최근 東獨에서 이에 대한 講帖이 發刊되었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四六倍版크기의 洋裝本學界에 소개된지 오래다고 한다. 複寫하는 재주가 있었으면 하고 문짝에 가런스럽게 부쳐져 있는 그림을 아낀 저녁으로 쳐다보고 있다. 아직 未정리상태로 倉庫 속에 있지만 최근 귀국한 丁抹人의 사의 舶來品(木工藝, 陶磁器) 五〇餘點이 있어 조사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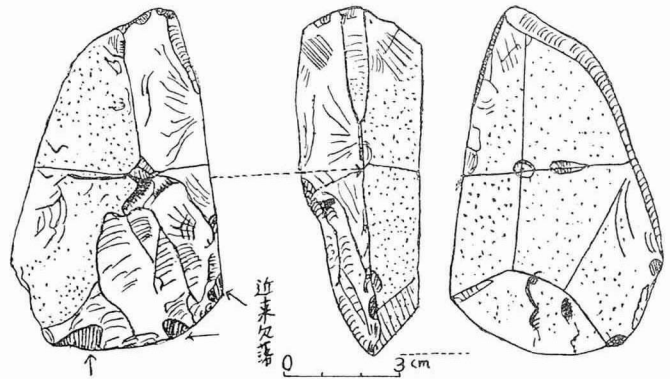
— 第七卷 第十二號 通卷七十七號 —

淳昌 三村里 出土의 一打製石斧

金 元 龍

今年 三月初에 文理大 地質學科의 一學生이 全北 淳昌地方 地質調査時

第七卷 第十二號 通卷七十七號



에 採集하였다는 打製石斧를 가지 고 왔다. 이 石斧의 正確한 出土地는 淳昌郡 豊山面 三村里 송두部落이며 여기 넓은 溪川에 面한 北向의 나지막한 丘山基部的 물도랑에서 採集하였다고 한다. 三月十七日 本人이 現地를 踏査한 바에 依하면 이 丘山은 石灰岩이 風化한 古い 朱土이며 山地表에서는 없었으나 基部的 浸蝕堆積土에서 角閃黑雲母片磨石製의 扁平單刃石斧(磨製) 一개를 採集할 수 있었다.

問題의 打製石斧는 全長 八·六cm 黑色珪長岩製인데 表面은 酸化해서 灰白色膜으로 덮혀있다. 母石은 한 쪽에 磨研한 것처럼 扁平하며 또 平行하는 세 개의 自然劈開面과 그 基部에서 斜雙을 形成하 듯이 斜行 하는 亦是 自然劈開面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쪽은 不規則하게 도두 라진 돌이며 이 母石의 頂部를 一側으로부터 打擊을 加해 比較的의 扁平 背部를 만들었고 다시 不規則하게 도두라진 側面만에 正確한 打整을 加해서 單刃비슷한 兩刃石斧를 만들고 있다. 특히 그 打整은 주로 雙部 에만 이루어진 것인데 剝離面이 좁고 길며 同心圓처럼 橫走하는 所謂 Conchoidal Ripples가 歷然해서 間接打擊法이나 木 또는 骨槌를 使用해서 剝離를 행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나는 이 地區에서 좀더 많은 珪長岩石器의 發見을 期待하였으나 더 찾지 못했고 송두部落 路上에서 작은 珪長岩片을 採集했을 뿐이다. 總括해서 이 石斧는 原石을 잘 利用해서 最少限의 正確한 打整을 加하여 만든 것이며 그 材料나 形態 또 製作法이 모두 特異한 것이라 하겠다.